

MWC 화제 콘텐츠 ‘가상현실’ 관광객 유혹

(세계최대모바일전시회)

세계 우수 IT 기업들 체험 코너 선배 무거움·착용감 등 기술적 개선 과제

“최고를 외칠 준비 되셨나요?(Thumbs up ready?)” “스릴 있지만 위험하지 않아요!(It's thrilling, but not dangerous)”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화제의 콘텐츠는 단연 가상현실(VR)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어 VR’ ‘360VR’ 체험 공간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회사는 돌러코스터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동 놀이기구를 설치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VR기기를 쓴 채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성을 지르는 관광객들로 MWC 행사장은 테마파크처럼 느껴졌다.

VR에 대한 두 회사의 애정은 남다르다. 삼성전자 갤럭시S7 공개 행사장에는 페이스VR 체험용 VR 기기인 갤럭시 VR 기기와 LG전자는 조준호 사장은 직접 360 VR 기기 아이디어를 냈다.

제조사뿐 아니라 통신기업들도 VR 삼매경에 빠졌다.

SK텔레콤은 가상현실 체험 VR 체험 공간을 마련해 깊은 비웃음을 거니는듯

한 경험을 선사했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파트너사답게 스키점프 등을 가상으로 겪을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인텔 퀵센 등 세계 우수 IT기업들이 크고 작은 VR 체험 코너를 만들어 관람객들을 유혹했다.

다만 올해 MWC는 VR의 가능성과 함께 접을 동시에 보여줬다. VR이 산업적으로 잠재력이 큰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극복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 MWC에 참석한 리더들도 VR의 장단점을 동시에 진단했다.

VR의 극복 과제로는 무게, 착용감, 회전 지연(Latency), 어지럼증과 멀미 등이 꼽혔다.

대부분 VR기기는 무게가 2~3kg에 달한다. 무게가 무거워 일부 관객은 VR 콘텐츠를 시청 내내 손으로 기기를 지탱했다. 손으로 기기를 잡지 않으면 번드를 조여 머리에 고정할 해야 하는데 이러한 눈가에 핀다 모양의 자국이 남는다. 업계에서는 이상적인 VR 기기 무게를 100g 미만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고개를 돌릴 때 VR 콘텐츠 화면이 뒤늦게 전환되는 ‘회전 지연’도 VR 기기의 가장 큰 숙제다. VR 영상 속에서 인간의 눈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VR의 극복 과제로는 무게, 착용감, 회전 지연(Latency), 어지럼증과 멀미 등이 꼽혔다.

눈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화면이 못 따라가 인지 작용 부조화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MWC 현장에서 만난 황창규 KT 회장은 “VR이 MWC에서 정말 많이 전시되고 있고 트렌드가 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VR이 많은 통신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고 디바이스 착용감 등 편의성 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준호 LG전자 사장은 “VR 지연 현상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VR 기기 무게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머리에

400~500g 무게를 끼우면 고문이다. LG전자는 기기 무게를 100g 미만으로 떨어뜨리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VR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부족한 현실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VR 사업 확대를 위해 전용 콘텐츠를 많이 확보할 것”이라며 “VR기기와 360도 촬영 기기인 일반인들이 VR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콘텐츠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다”고 전망했다.

/안진수 기자

싸이월드, 자금 유치 12% 불과

소셜미디어(SNS) 싸이월드가 추억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싸이월드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크라우드 펀딩이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싸이월드는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싸이월드는 펀테크 업체인 와이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8일까지 5억원을 투자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스스로 평가한 회사 가치 50억원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자금은 이날 오전까지 5852만3000원으로 목표액의 11.9%에 불과하다.

싸이월드는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5억 9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올해 11억5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해 2018년까지 1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8년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싸이월드는 온라인 IR을 통해 ▲SNS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점 ▲140억 장의 사진이 저장돼 있는 점 ▲타 SNS에 비해 자기 표현 중심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강해 차별화 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모임, 아이러브스쿨 등과 함께 1세대 SNS의 대표주자인 싸이월드는 2003년 SK텔레콤의 증손자회사인 SK컴즈에 인수됐다.

모바일 적용 실패와 트위터, 페이스북의 등장과 함께 싸이월드는 위기를 맞이했다.

과도한 유료화 정책이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주장도 있다. 2013년 SK컴즈는 결국 싸이월드를 분사했다.

벤처회사가 된 싸이월드는 EBO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EBO 방식으로 운영해 직원이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람들이 떠나 현재 20여명만 남은 상황”이라며 “부채도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캐딜락 콤팩트 프리미엄 세단 ‘ATS-V’ 출시

지역, 7950만원~9050만원 판매

지엠코리아가 캐딜락 브랜드의 콤팩트 프리미엄 세단 ‘ATS-V’를 출시했다.

지엠코리아는 24일 캐딜락 서초전시장에서 캐딜락 브랜드의 고성능 스포츠 라인업 ‘V-시리즈’ 신모델 ATS-V를 국내에 처음 공개하고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장재준 지엠코리아 캐딜락 총괄 사장은 “ATS-V는 고성능 수임차 시장에서 남다른 디자인과 성능을 원하는 고객에게 어필하는 동시에 캐딜락 브랜드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ATS-V는 V-시리즈 최초로 트윈 터보 기술을 채택한 3.6리터 V6 엔진을 장착했다. 그 결과 최고출력 470마력, 최대토크 61.4kg·m를 달성했다. 제로백(0~100km)을 3.8초만에 돌파하는 가속 성능과 302km/h에 이르는 최고 주행속도를 갖췄다.

후륜 8단 하이드라매틱 자동변속기는 ATS-V의 스포츠 모드와 트랙 모드에서 동력가속도(G-Force)를 감지해 상황에 맞

는 변속을 돕는 퍼포먼스 알고리즘 변속(PAS) 기능을 적용했다. 트랙 등에서 안정적인 초반 가속을 돕는 런치 컨트롤(Launch Control) 기술도 갖췄다.

ATS-V의 외관 디자인은 캐딜락의 시그니처 방패형 메쉬 그릴을 사용했다. V-시리즈를 상징하는 독특한 전면 및 후면 범퍼와 리어 스포일러는 공기저항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실내 공간은 스웨이드 재질의 마이크로파이버 소재가 주요 인테리어 부위에 적용됐다. 마그네슘 재질의 패달 시프트와 스포터한 그림을 선사하는 스티어링 휠은 고급감을 높였다.

캐딜락 ATS-V에는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기능, 후방 통행 차량 감지 경고 시스템 등 안전 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또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운전자에게 시각 경고뿐만 아니라 진동으로 경고하는 안전 경고 햅틱 시트도 갖췄다.

캐딜락 ATS-V의 판매 가격은 7950만원~9050만원이다.

/안진수 기자

금감원, 조기금융교육 위한 체험형 교구 개발

금융감독원이 조기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체험형 교구를 개발하고 감사 교육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과 4월 사이 1사교 금융교육 3차 결연을 추진, 교육 참여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사교 교육이란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맺고 한 학기 당 2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교육은 금융회사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사제 중심으로 강의하거나, 학생들이 점포를 방문해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사교 금융교육에 학교 2795곳과 금융회사 2190 점포가 참가, 모두 16만 6023명의 학생에게 금융교육이 이뤄졌다.

진용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금감원에서 열린 1사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학교와 전 금융권이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줬다”며 “금융과 교육 현장을 연결해 금융교육 접근성의 질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학교와 금융회사를 통틀어 55명이 선정됐다. 금융협회장상은 학교와 금융회사에 소속된 개인 25명이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에는 진 원장과 5개 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금융회사 임직원, 학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진수 기자



카카오, ‘공유’ 개방 모바일 내비게이션 출시

카카오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카카오내비’를 출시했다. 카카오 내비는 지난해 5월 인수한 모바일 내비 김기(특별엔솔)에 카카오의 노하우를 더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24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내비의 최대 특징은 공유와 개방이다.

기존 내비게이션은 특정 위치만 공유할 수 있지만 카카오 내비는 현 위치와 목적지, 예상 소요시간을 한 번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다.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유일하게 웹 기반 길 안내를 제공해 목적지를 공유 받은 친구는 별도로 카카오내비를 다운로드 없이도 바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장소를 한 번에 공유할 때는 태그 공유를 사용하면 된다. 발집에 저장해 둔 장소에 태그를 달아놓으면 태그 공유를 통해 수십 개 장소도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내비는 세련되고 친근하게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주행 화면 경로 안내 영역은 도로 교통표지판처럼 과감하게 사용해 실제 운전 환경을 재현했다. 옆에 사용된 색깔을 제한해 눈의 피로도와 눈부심을 줄였다.

대신 카카오 대표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를 벌집 화면과 주행 안내 문구, 도착 안내 등에 전면 내세워 밝고 경쾌한 느낌을 더했다.

장소 상세 화면은 팝업 형태로 키워서 사용성을 높였다. 목적지까지 거리와 위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 등 운전자가 출발 전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